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듣는다 대담=장용동 본지 편집국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장용동 본지 편집국장과 대담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오찬과 만찬 코스 요리를 계속 국내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게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여를 준비해온 고추장 매운맛 표준화를 오는 4월에 발표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식의 매운맛이 어느 정도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이 이사장으로 나선 한식재단도 이달 중 출범한다. 무엇보다 10년 후 우리 농식품의 수출을 300억달러 수준으로 높이려는 농식품산업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장 장관은 이날 누차 ‘식품은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식품 역시 반도체, IT, 조선처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진다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스위스의 세계적 식품회사 ‘네슬레’의 매출액은 삼성전자보다 많다.

“G20 정상회의 한식메뉴 개발…고추장 매운맛도 등급화”

쌀알 개수·수분 등 계량화
日 ‘스시’ 글로벌화 벤치마킹
4월 한국의 매운맛 표준화
3월중 ‘한식재단’도 출범

예산·투자 지속 확대편
반도체·통신·조선처럼
세계적 블루오션 분야 자신

—‘농식품산업 비전 2020’은 ‘네슬레’ 같은 매출액 10조가 넘는 식품회사를 5곳으로 늘린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식품산업 육성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식품은 과학이다. 스위스는 커피와 코코아가 나지 않는 나라인데도 이를 수입해 가공하는 방식으로 연 18억달러 이상을 수출한다. ‘네슬레’ 같은 식품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인삼이 나는 우리나라는 1억달러 수출에 그치는데, 인삼 한 뿌리 안 나는 스위스는 3억달러를 수출한다. 이게 바로 경쟁력 있는 대규모 식품회사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힘이다.

결국 기술이 있어야 하고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농업 기술은 이미 상당히 발전된 상태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의 파프리카, 양돈 농가로 기술을 배우러 온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식품회사도 13군데나 된다. 의외로 기반이 튼튼하다. 여기에 현재 추진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모태펀드, 농식품 공동투자회사 등 정책 지원이 더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하자면 반도체와 통신, 조선 이런 산업 분야처럼 농식품도 정부의 예산과 투자를 통한 민간자본 축적이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모태펀드로 겨우 600억원을 확보했는데 2011년 2000억원 나이가 2020년까지는 2조~3조원이 되도록 예산과 투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관계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문제다.

—‘네슬레’처럼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예를 든다면.

▶건강식품과 같은 기능성 식품을 들 수 있다. 소독이 높아지면 의약품 대신 건강식품 등 기능성 식품을 찾게 된다. 또 식품의 기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식품은 반도체 이상 가는 산업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토질과 자연, 기술 모두 발달해 충분히 가능하다. 예컨대 쌀을 이용한 화장품이나 쌀을 이용한 말라리아 치료제 등은 충분히 산업화되고 수출할 수 있다. 심지어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경우 같은 속인데도 우리나라 것의 함유량이 높다고 한다.

—식품산업 발전의 전제는 무엇보다 ‘안전’이다. 식품 관련 안전 관리가 식약청과 이원화돼 있는데 이에 대한 농식품부 의견은 어떠한가.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식품만을 다루는 곳에서 체계적이고 통일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식품 문제는 과도하리만큼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 단계는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는 통일된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이스크림은 농식품부에서 빙과류는 식약청에서 안전을 관리한다. 또 분유 안전은 농식품부 담당인 반면, 이유식은 식약청 담당이다. 시장과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즉석에서 농작 잔류량 등을 확



장태평 장관은 올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가 우리 음식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한식단을 마련해 널리 알리고, 식재료 등의 등급화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서울 양재동 하나로 클럽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면 바로 유기농 식품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다. 도요타가 도요타 제품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고 리콜을 하듯, 식품 안전 역시 식품을 유통하는 이들 스스로 인증 체계를 만들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유통 시스템이 날로 대형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유통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또 현장에서 식품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간이 키트 개발도 하고 있다.

—식품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를 빼놓을 수 없다. 한식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나.

▶한식이 무엇이란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있다. 식재료가 한

식인 것도 있고 스타일이 한식인 것도 한식이라 부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식 세계화는 여러 목적이 있다. 우리 브랜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실질적 목적은 우리 식품의 수출이다. 이는 결국 식재료 수출로 귀결된다. 식재료 수출을 위한 한식 세계화 연구를 하고 있고, 식재료수출협회도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식재료수출협회에 금전적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아 고민 중이다. 개인이 손해를 보며 활동하게 하진 않겠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가입해 함께 활동하면 곧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2020년 10조 클럽 식품회사 5곳 육성 역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다섯 회사가 말하자면 김연아고 뒤에 포스트 김연아, 박민정 선수 등이 따라오도록 만들겠다.

—한식 세계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비판하는 이들은 한식의 표준 조리법 등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식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나.

▶일본 정부는 ‘스시’를 통해 된장과 간장 등 일본 식재료의 세계화를 이뤄냈다. 스시 조리 표준화를 위해 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스시 5cm의 쌀알 개수, 쌀의 세척 횟수, 수분 함량, 부피 등을 알아냈다.

우리로 할량을 계량화하고 매운맛 등을 등급화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맛을 유지할 수 있다. 4월에 고시되는 고추장 매운맛 표기 GHU(Gochujang Hot Taste Unit)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고추장의 매운맛 뒤에 뒤따르는 단맛은 충분히 세계적 핫소스 타바스코 소스를 꺾을 만큼 경쟁력이 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농식품부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나.

▶올해 G20 정상회의, 한국 방문의 해 등은 한식 세계화와 우리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G20 회의 참석을 하려고 한국을 찾는 인원만도 6만명에 달한다.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몇 개의 표준상차림을 만들고 있다. 조찬, 오찬, 만찬 등 정상이 갖는 만찬 하나하나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그 상차림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조리법을 표준화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한식의 영어 표기법을 표준화했고, 막걸리 용기 디자인도 표준화하려고 준비 중이다. 올해 식품 엑스포에서 그릇 디자인, 한식당 표준 인테리어 등 한국 고유의 분위기를 담은 한식 세계화 방안을 선보일 것이다. 이 같은 노력들이 반복해 쌓이면 한식 세계화도 머지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

—김치, 고추장 등 식품산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비중이 크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

▶식품제조업 분야에서 300명 이하 종업원을 가진 중소기업 비중은 무려 99%다. 정부는 농어업인이 공동투자한 식품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7년 만들어진 주식회사 곡순당 고창명주는 고창지역 농업인 420명이 70%의 자본에 참여했다.

이 같은 공동투자 식품기업을 2012년까지 50개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농업인 모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농식품 시설 현대화에 515억원, 수매지원사업에 811억원, 국제박람회 등 해외 마케팅 사업에 206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리=성연진 기자/jsung@heraldm.com
사진=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누구

넥타이 풀고 현장으로…농협·수협 체질개선 주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KBS ‘채널 삶의 현장’에 출연했다. 쌀국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쌀 흘려 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그가 매주 장관실에서 나와 농업현장을 누비기 때문이다.

권위를 벗어던지고 소탈한 모습으로 현장에 다가서는 그의 업무 스타일은 장관이 직접 사진을 찍고 글을 적어 올리는 블로그 ‘새벽정답’(<http://taepyoung.tistory.com>)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전라북도 김제의 한 농민이 “장관님은 참 좋은 농촌에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라며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을 호소하자, 일요일 예정에도 없이 부랴부랴 김제를 흔자 다녀왔다.

장 장관은 그곳에서 “쌀값 걱정은 하지 마시라. 풍년이 들어 쌀값이 떨어진다 해도 쌀값의 98% 내외는 쌀 소득 직불금으로 보전된다”고 직접 전했다.

장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크게 번지면서 물러난 정운천 전 장관의 뒤를 이어 2008년 8월 취임했다. 이후 맬라민 사태, 쌀 직불금 파동 등 진땀 흘리는 굴곡의 시간이 이어졌다. 취임 후 4개월 뒤 이뤄진 대

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잘하겠다’는 사과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농업 수협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진화위원회를 통한 농업의 체질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 농업인, 어업인, 학자, 전문가, 관련단체 대표,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만의 ‘소통’ 덕일지도 모른다. 오는 주말에 고향을 찾았다 넥타이를 풀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장 장관을 만날지도 모를 일이다.